

지역 소식통

완주군, 중대재해 점검 강화

완주군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군청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6월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업장 별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여부, 안전보건 점검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체적 점검 대상은 시설설비 관리, 환경정비 등 현업업무에 담당하는 부서, 불특정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완주군 소관 공공이용시설 관리부서, 식품원료제조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등이다.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진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 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근 중대재해와 관련해 많은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철저한 중대재해 이행점검과 개선으로 안전한 미래행복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김제시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를 지난 17일 시와 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축로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주재기자 등 내빈을 비롯해, 김제시 청원 1,000여명이 함께했으며, 식전 공연, 개회식, 한마음 행사(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마음 행사는 피구, 단체줄넘기, 계주 등 체육경기를 직원, 의원, 기자 등으로 구성된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당면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뜨거운 땀을 함께 흘리는 화합과 친목의 시간이 됐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 노동조합과의 노사소통, 협력적 파트너십 구현에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기회가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행보 시민 호응

국가 예산 확보·공모사업 대응·시민안전 등 동분서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주 김제시장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가 중앙부처 통합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힐스타운 '시인' 사업추진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지정선 제

2산업단지 근로자 및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연계된 수요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주민설명회, 전북 개발공사, 전북연구원, LH전북본부, 중앙부처 등에 수차례 방문을 통해 컨설팅 등 공모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지난해 입었던 풍수해 예방을 위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 입었던 풍수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정비사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와 점검을 하고 있다.

해 실시되는 정비사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와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자연재난 대응 부서장들과 직접 만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민생관련 특별 지시를 당부했다.

또한 간부회의에서 정부정책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타당성도를 높일 것을 부연하며 정부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직전까지 정책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준비를 지시했다.

이어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과 "김제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국가예산 확보인 만큼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리를 보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시장은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김제시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인구 위기 선제적 대응

도내 최초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착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최초로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축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현실 위기로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이 주도해 외국인 유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용역은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오랜시간 이어지면서, 방치 시 사회 존립 자체가 우려되는 지방위기를 넘어 나라의 경제·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장기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시도되는 외국인 정책 용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인구 축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만,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시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단기 내 출산율 증가

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눈 앞에 닥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각종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치 정책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 △김제시 산업구조와 농촌 등 인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외국인 유입정책 개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등 대상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 특례 대응 전략 마련 등이 담겼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저출산, 고령화는 지방은 물론 국가적인 사회 위기로, 출산율은 단기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성장 정책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이 지방소멸위기에 협력해 나갈 정책모델을 연구 발굴하는 등, 산업 및 농업 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유지를 위한 생활인구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초록우산 전북본부, 가족돌봄아동 지원 협력

'완주군과 함께 돌봄' 프로젝트 추진

완주군(군수 유희태)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손을 맞잡고 '가족돌봄아동' 지원에 나선다.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전남(16일)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을 발굴, 지원하는 '완주군과 함께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이지만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완주군과 함께돌봄' 프로젝트는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해 가족돌봄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발굴된 가족돌봄아동의 욕구에 맞는 주거, 학습, 의료, 생활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다.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은 "완주군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아동의 어려움을 민관이 함께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행정동우회,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한 관할결정 촉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행정동우회(회장 진정록)가 지난 17일 새만금 방조제 33센터 앞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군산시에서 헌법 제소한 관할권 분쟁이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동서도로 등 관할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행정동우회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 내륙과의 연결관계, 해양 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기준이 확정되어 경계가 확실해졌고 군산시에서 헌법제소한 관할권 분쟁이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동서

도로 등 관할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중분위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요청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새만금권 통합은 관할권 결정 전에 논의될 수 없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6일 김제시체육회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김제시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체육회,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단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김제시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단식에는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찬준 김제부시장과 종목별 선수단 및 지도자, 학부모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우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대회를 위해

훈련에 전념해 온 지도자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없이 평소 기량을 맘껏 발휘하여 학교와 우리고장 김제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꿈나무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훈련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김제시선수단은 하기를 비롯해 총 9개 종목에 47명(초등 7명, 중학교 40명)이 참가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